

“가상통화 법정 화폐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행 주체 없고 가치의 안정성 없어… 투기적 성격 가세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화폐와 결체 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반, 금융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것”이라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에 나섰다 것은 너무 나간 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은은 지난 9일 가상통화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국내 경제와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일단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가 금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변동의 충격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예외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홀리이나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적 성격은 문제로 봤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거래가 없는지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오라가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게 정말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2018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은행지역사랑부서와 대학생봉사단 20여명은 겨울철 의류인 패딩 점퍼와 아동복의 등 1000여개의 방한복을 직접 포장한 뒤

독거노인 등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한복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참여해 마련한 방한복을 통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방한복, 김장, 연탄, 겨울이불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근 기자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수상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제2회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수상자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최경주 프로골프 선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산업 분야 수상자인 김홍국 회장은 1978년 전북 익산 황등농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축산분야에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 투기적 사업이었던 우리나라 양계업을 고소득 유망사업으로 탈바꿈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과와 명예를 높인 것은 물론 국격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경주재단을 통해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 해외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긴급 구호사업, 골프 문화 양성 사업 등 끝내루 양성과 나눔·기부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도 수상자로 선정되는 데 한 몫 했다.

호남미래포럼의 호남인상은 호남지역에서 출생했거나 성장·거주한 이들 가운데 국내외에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명예를 높이는 공적을 기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7년 첫 제정됐다.

호남미래포럼은 이번 제2회 호남인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망과 경륜이 높은 지도층 인사들로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곡물 사료 축산 가공 유통 분야에 국내외 90여개 법인을 거느린 국내 최대 농식품 그룹을 일군 한국 푸드&에그리비즈니스 개척자로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수상자인 최경주 선수는 1970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초기 아시아 무대에서 활약해 PGA 투어 자격을 얻은 첫 한국인으로서, 미국 PGA투어 A TKT 내셔널대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에서 35회가 넘는 우승을 통해 골프선수로서 개인적인

광주, 전남, 전북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 80여 곳으로부터 모두 70명의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1차로 후보자 12명을 추천했고 이어 이들에 대한 2차 심사에서 2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선정위원장은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맡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호남미래포럼은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8년 신년대례회와 함께 호남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정읍 농어촌공, 업무 보고·직원과 소통시간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올 한해를 공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정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으뜸지사로 거듭나 신뢰와 배려, 기본과 원칙의 중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다짐하였다.

정읍지사는 18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개부 2개지소에 대한 2018년도 각 부서 업무보고를 갖고, 금년도 핵심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조직의 활성화

를 기하고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견해를 말하고, 업무를 서로 공유하여 지사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 지사장은 봄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지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농편익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저지대 및 특용작물이 있는 지역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부터 혁신성장 투자시 기금평가서 가점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정부가 올해부터 벤처투자 등 혁신성장에 투자하면 기금평가서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됐다. 100억원 이상 또는 여유자금의 1% 이상을 혁신성장에 투자하면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예컨대 혁신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하면 기금평가서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벤처혁신펀드’를 연기금투자자에 신설할 계획이다.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기금들의 혁신성장 투자 관련 불안감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부터 운용상품집중도 평가의 배점이 5점에서 6점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대상 상품 중 국내주식형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기로 했다.

배점 2점이 매겨지는 공공성 확보노력도 대상으로 사회적임투자 펀드가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사회적임투자 펀드는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책임 요소를 고려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한다.

개정된 기금평가지침은 내년도 봄에 진행되는 2018회계연도 기금평가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당정, 카드수수료 방식 ‘징액제→정률제’ 개선 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 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밴 수수료 부과 방식은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징액제)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된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당정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은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